**사자(死者)를 위한 주거시설 – 파주추모공원**

**파주추모공원 현장**

**김대준 대리**

용미리…용의 꼬리라는 단어의 의미에 빗대어 끝나가는 곳, 죽은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진흥기업 최초의 장묘시설 건축 현장인 우리 파주추모공원 현장이 위치한 곳은 바로 이곳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53-9번지입니다.

용미리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현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수맥이 없어 묘지시설로는 명당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현장에 가장 중요한 현장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천공을 시도했으나, 역시나 알려진 데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곳이어선지,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상수도를 현장용수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건축현장의 모습과 대부분의 공정은 아마도 타 현장과 다를 바 없지만, 우리 현장만의 특징을 들자면 아무래도 묘지시설을 시공하는 현장이기에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동시에 사자(死者)를 위한 봉안시설을 함께 공사를 하다보니, 시공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해에 비해 길고 길었던 우기로 인해 지옥훈련처럼 느껴지던 외부마감공사는 ‘과연 예상 공정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천정에 ‘천창’을 두어 자연채광이 건물 내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시공 완료가 채 되기 전에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오면 천막을 치고, 멈추면 환기를 위해 천막을 철거하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땐 정말 평생 맞을 비를 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다보니 벌써 준공이 되었네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일반 아파트 건축에 비해 긴 공정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분은 같았습니다.

사자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에, 되려 항상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공사에 임했습니다.

참, 이거 아시나요? 사자를 모시는 봉안당도 아파트와 같다는 것을요. 아파트가 층에 따라 가격이 틀리듯이 봉안시설도 위치에 따라 분양가격이 다르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고, 높고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산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마냥 죽은 이들의 아파트에도 로얄층이 있는 셈이죠.

공사기간동안 야근할 때마다 직원들끼리 농담처럼, “혼자 있어도 슬프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네 주위에는 항상 너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라는 이야길 주고 받곤 했습니다. 도심과 떨어진 외곽, 주변은 공동묘지뿐인, 버스도 안 다닐 정도의 한적한 산꼭대기 현장이니 오죽하겠습니까….하…하..

처음엔 찬바람이 불면 오싹해지는 그 농담이 이젠 되려 그리워지네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던 공사현장이었지만, 뒤돌아 보니 좋은 이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에 또 다른 현장경험을 쌓아 새로운 현장에서도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현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파주추모공원 현장 직원 모두는 현장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현장으로 떠나는 날까지 안전시공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추모공원 현장개요 >

공 사 명 : 파주추모공원 신축공사

발 주 처 : 재단법인 서현

착 공 일 : 2010년 7월 1일

준 공 일 : 2011년 11월 3일

현장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53-9

공사개요 : 연면적 6,237.63㎡ (1,886.87평)

봉안당 2개동 (총 35,000기) 및 부대시설